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주요 내용

이상우 수석연구원

정부는 최근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등록 관리시스템 도입, 경증 치매환자 보험 적용, 치매정도별 차별화된 시설 확충, 치매안심요양병원 설립, 치매 요양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확대와 부담률 인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예방 프로그램 제공, 기타 실종 예방, 공공후견제도, 치매안심마을 등 인프라 구축,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설치 등임

■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요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9월 18일 발표하였음¹⁾

- 주요 배경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 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 127만 명까지 증가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이 심화될 전망이다
- 이에 정부는 그동안 미흡한 치매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여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임

■ (치매안심센터 운영) 2017년 12월까지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

- <그림 1>과 같이 치매안심센터²⁾ 내부에 치매단기쉼터³⁾와 치매카페⁴⁾를 만들어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지연하고 치매안심센터(주간)와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을 2018년까지 구축함

1) 보건복지부(2017. 9. 18),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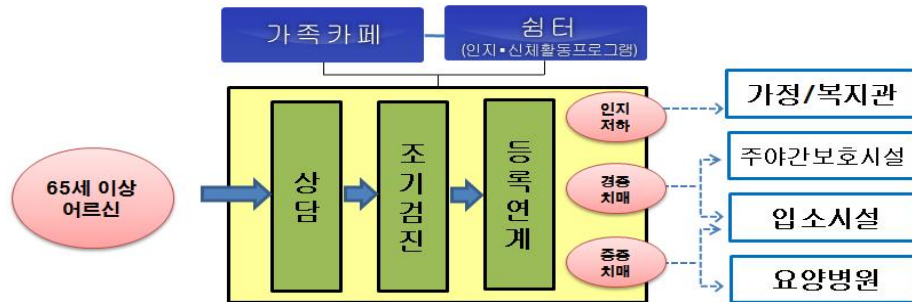
2)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기구

3) 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등을 제공

4) 치매가족이 정보 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 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에서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함

〈그림 1〉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2017. 9. 18),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 (장기요양 확대 검토)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증 치매환자도 모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새로 추가되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치매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함
-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이 확충되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경증 치매환자 대상)과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중증 치매환자가 대상)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함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서비스 질 관리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환자의 단기 집중치료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함

- 이를 위해 우선 전국에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한 후 향후 단계적으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대될 계획임

■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에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향후 점차 확대함

-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종전 20~60%에서 2017년 10월부터 10%로 인하하고,

종합신경인지검사와 MRI 등 치매 진단검사를 2017년까지 건강보험에 적용함

- 치매환자의 수요가 큰 기저귀 등 치매용구와 시설 식사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를 추진함

■ (치매예방 환경 조성) 전국 350여 개의 노인복지관에서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제공될 프로그램은 인지기능이 약화된 고령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고령자가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를 제공함
- 향후 66세 이상 고령자에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를 더욱 정교화하고 검사주기도 종전에 4년에서 2018년부터 2년마다 받도록 단축함
- 기타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환자 실종 예방사업,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

■ (치매 R&D 실시) 보건복지부 등은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 연구계획을 수립함

-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주요 지원과제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임 **kiri**